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06
2017 03+04월호

이재용 대전하천감시단 대표

“금강~대청호 사진전에 초대합니다”

“전통 고추장으로 입맛 당겨요!”

농작물 수확의 기쁨, 텃밭에서 녹색정감을 걸우며

“배고픈 며느리의 원한~ 솥이 작다에서 유래~ 솟쩍~”

대청호 녹조 대응 전문가토론회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위한 하천감시단의 다짐!

대청호에 눈을 뜨다

백진선(5기 대청호해설사)

처음 시작이 그랬다.
내가 사는 곳이니까
대청호해설사 한번 해봐야지

처음 시작은 어려웠다.
쉼없이 대청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걸어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조금 더 느린 걸음으로
마음껏 즐기는 법을 배우고
대청호의 사계를 느끼면서
조금만 더 가보기로 했다.

느린 걸음에는 기다림도 필요하다
대청호의 아름다움을
마음안에 담아두고 사진으로 남겨둔다.

대청호의
봄길에는 앙증맞게 들꽃이 피어있고
여름날 소낙비가 지나간 자리에
소슬바람 불어와 소리없이 떨어진 꽃자리에 열매가 매달리고
겨울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은빛 윤슬 찬란한 대청호를 만들어낸다.
내마음 대청호를 따라가기로 했다.

대청호해설사는 우리단체 소모임으로, 대청호물환경교육을 운영하는 자원봉사모임입니다.
짧지만 진솔한 대청호해설사의 이야기로 대청호소식지의 첫장을 시작합니다.

CONTENTS

2

6

16

22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52** [인터뷰] 이재용 대전하천감시단 대표
6 **물의 날 기념 대청호 사진전**
8 **회원마을 스토리텔링 1** 옥천 안남면 도덕리 덕실마을 고추장담기
12 **기획특집 … 귀농귀촌이야기 12**
16 **대청호생태이야기 2**
19 **정책&이슈** 대청호 녹조 대응 전문가 토론회
22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하천감시단 발대식**
25 **네트워크사업소개** 무주네트워크
26 **네트워크사업소개** 금산네트워크
27 **네트워크사업소개** 영동네트워크
28 **네트워크사업소개** 옥천네트워크
29 **네트워크사업소개** 보은네트워크
30 **네트워크사업소개** 청주네트워크
31 **네트워크사업소개** 대전네트워크
32 **네트워크사업소개** 천안아산네트워크
33 **대청호 NEWS & NEWS**
36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06

발행일 2017. 4. 6
발행인 윤여표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윤여표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이성숙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 · 인쇄 월간 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1 2층
042)320-7151

표지이야기 산수유꽃이 주먹을 쥐다가 손가락을 펴는 봄, 바람은 살랑거리고 들판에선 생명들이 축제를 즐기는 봄, 눈부신 햇살 한줌 가득 머금은 새싹들이 온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는 봄, 대청호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은빛윤슬 맑은 물 대청호의 봄꽃축제를 찾아 떠나보자. (사진제공 : 박병춘 대신고등학교 교사)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교육국장

[인터뷰] 이재용 대전하천감시단 대표

“하천감시 및 조사활동, 일상적인 관리가 필수”

“대청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할까요?”

대청호수와 불과 200여m 거리에 위치한 대전 동구 주산동마을에서 대전지역 하천감시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용 감시단을 만났다.

“최근 들어 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비단 범지구적인 물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고 덜 내리는 정도에 따라 농작물경작이든,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고 없고를 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해부터 주산동 통장에 선출되어 마을주민대표로 마을살림을 책임지고 돌보랴, 개인농업경작하랴, 1인다중 역할로 눈코뜰새 없는 세월을 열고 있는 이재용 감시단은 지난 몇 년동안 들쑥날쑥했던 강우량에 따라 물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 녹조현상 및 쓰레기불법행위 등 수질오염원들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고민의 깊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마을 곳곳에는 불법투기된 각종 쓰레기더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CCTV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적발된 사례도 없고, 또한 적발할 행정기관의 의사도 불분명한게 현실이라 더 안타깝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하자, “단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주민들간 공방이 큰게 사실입니다. 농촌마을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여 처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농지가 없는 젊은 이주세대들의 경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농촌마을 대부분의 실정이 똑같을 겁니다. 농촌마을에 살면 종량제봉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오히려 반문한다. 농촌마을의 경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불분명하고 행정의 개입도 전무한데다 모두가 땅에 파묻고 소각처리한다면 그로인한 2차 3차 지하수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가오는 미래환경의 걱정도 잊지 않는다.

주민들간의 크고 작은 의견충돌이 생겼을 때 마을대표로서 중재역할을 신중하게 도맡으며 공공의 이익과 배려의 마음을 강조하는 이재용 통장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평형저울이 연상된다.

공평한 시각으로 조화와 균형, 정의와 양심을 의미하는 평형저울처럼 항상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마을행정을 돌보는 프로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환경문제, 소통과 배려속에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마을 작은 도랑이 모이고 모여 대청호로 직접 흘러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유입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상시적인 하천감시와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하천감시단으로서 1년 넘게 활약하면서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는 본인은 물론 마을주민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마을 도랑관리는 우리마을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공통의식을 전하면서 매월 20일이면 주산동에서 대청호로 이어지는 하천 곳곳을 누비고 조사하기 위해 여념없다.

대전 동구 4지점을 조사하기 위해 장화신고 물속 수온과 PH를 측정하면서 이상징후를 발견한 적은 아직 없었지만 매번 할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전한다.

경작 준비시기와 농번기가 한창일때는 하천주변 경작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농한기때에는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다양한 쓰레기 더미들도 오염을 한층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폐농자재나 폐건축자재들이 더미채 쌓여있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기도 하는데, 마을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터라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을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환경문제는 결코 혼자 해결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사람간의 관계, 소통, 배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여쭈어보니, 대청호오백리길이 조성되고 대전지역 6개 구간의 관리원모집 때문에 여러차례 소통하면서 환경단체활동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고 기억을 더듬는다.

지난해 마을통장으로 선출되면서 금강하천감시단에 위촉되어 감시활동을 직접 하면서 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해 대청호해설사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환경교육 및 생태마을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청호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으신다.

한참동안 보람찼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단체 소모

임동아리인 대청호해설사들과 함께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청호의 습지이야기와 더불어 하천변 쓰레기소각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 생활속 환경사랑 실천활동 등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만남이 잦았고, 더욱이 생태마을로 변화발전하고자 하는 뜻을 간직한 주산동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모아져 생태관광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지견학의 경험들이 보태져 마을주민들의 환경사랑의지가 높아졌다는 그의 증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천감시단으로서의 소회를 여쭈어보니,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며 "우리마을공동체가 좀더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을교육, 환경교육이 보강되면 좋겠다"고 제안하신다. 특히 하천감시단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좀더 보강되면 좋겠다며 교육의 힘이 곧 희망이라고 강조하신다.

더불어 올해부터 대전지역 하천감시단 대표를 맡게 되면서 대덕구 2명, 동구 7명 총 9명의 하천감시단들과 하천조사의 경험도 나누면서 하천감시 및 조사방법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잊지 않는다.

한편 1남1녀를 둔 이재용 감시단은 현재 노모를 모시고 부부가 함께 주산동에 거주하면서 유기농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금강~대청호 사진전에 초대합니다”

대청댐물문화관에서 4월23일까지 전시

글 **이성숙**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장

대청댐물문화관에 가면 금강~대청호에 관련된 생생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2017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사진가회 DPHOTER가 주최하고 우리단체와 K-water대청댐관리단이 공동주관하는 가운데 금강~대청호 사진전시회(이하 대청호사진전)가 준비된 것.

디지털사진작가회 DPHOTER(회장 나누미/황현하)는 ‘사진으로 통하는, 사진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0여점의 대청호사진을 선보이면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물의 소중함을 오감을 동원하여 전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물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고 거대한 공장을 움직이는 중추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창조까지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등 인간의 삶

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는 공공자원으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수자원보호를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

또한 K-water대청댐관리단(단장 정의택)은 대청호 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대청호사진전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금강에 자리한 대청호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대청호와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동주관을 맡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윤여표 충북대학교총장)는 맑고 깨끗한 금강~대청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들 공동의 목표는 언젠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청호사진전을 준비한 이들과 감상하는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대청호보전운동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2017 대청호사진전은 3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한달동안 계속된다.

한편 세계 물의 날(3월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로써,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 물의 날 준수 결의안’을 채택, 이를 기념하고 실천하기 위해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였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전통 고추장으로 입맛 당겨요!”

옥천군 안남면 덕실 마을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보고

그동안 포토에세이(17회)를 통해 대청호와 그 주변의 감성적 메시지를 전해준 박병춘님께서 이번호부터 우리단체 회원마을탐방기를 연재하기로 한다. 우리땅 우리물 살리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실행하는 우리단체 회원마을의 진솔한 이야기가 기대된다.

산수유꽃이 주먹을 쥐다가 손가락을 편다. 바람은 살랑거리고 들판에선 생명들이 축제를 즐긴다. 목련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봉긋 봉오리를 내밀고, 개나리는 가지마다 일렬로 서서 미소를 준비한다. 진달래는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외칠 것이다. 결단코 봄이다.

이렇게 좋은 봄날, 대전에서 옥천을 거쳐 안남면 도덕리에 있는 ‘덕실 마을’을 찾았다. 살가운 봄 햇살이 여기저기 들판을 넘어 대청호를 감싸고 나의 가슴에도 들어와 탱고를 추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심쿵!

나즈막한 산과 고요한 들로 어우러진 덕실마을. 고추장 담그기 행사가 있는 마을 앞에 주차를 했다. 먼저 도착하여 행사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 이성숙 부장의 고운 미소도 봄이었다.

먼저 10년 이상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주관하며 전통 고추장의 참맛을 계승하고 있는 원영순씨를 만났다. 10여년 전에 연세 좀 드신, 지역의 어머니 학교를 시발점으로 자연스럽게 도시 거주 엄마들을 초청하여 전통의 맛을 계승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젊은 세대 엄마들이 전통 고추장을 잘 모르잖아요. 마트에 가서 소스로 먹는 게 대부분일 테고요. 이렇게라도 전통장을 담가 직접 먹을 수 있게 안내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원영순 씨는 차분하고 구체적인 어조로 고추장 담그는 법을 설명했다. 결코 1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진정한 전통장을 만들고 싶은 게 원씨의 소박한 바람이다.

원씨는 보다 쉽게 전통 고추장 담그는 방법을 프린트하여 참가자들에게 배부하고 별도 공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연했다. 제대로 시연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에 이번 시연을 위해 모든 재료를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참가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자주 찾는 분들과 깊은 교감을 하며 전통 계승에 몰입하는 모습은 장인 정신 그 자체였다.

이날 시연된 〈뚝딱 고추장(약 3킬로그램)〉 담그는 방법을 소개한다.

재료는 고추장용 고춧가루 500그램, 메주가루 250그램, 조청 1킬로그램, 소금 300그램(천일염 기준, 정제염 250그램), 끓인물 1리터(끓이기 전 1.2리터)

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01 분량의 물을 끓인다.
02 끓인 물(1리터)에 분량의 조청을 잘 푼다.
03 조청물에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04 '03'의 재료에 메줏가루를 넣고 잘 저어 섞는다.
05 소금으로 간을 한다.(소금을 먼저 넣으면 고춧가루와 메줏가루가 잘 퍼지지 않는다.)
06 항아리나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고 가끔씩 뚜껑을 열어준다.

원씨는 어느덧 4년째 마을 농산물인 두부, 기름, 콩나물, 잡곡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평송문화센터 직거래 장터에 내놓기도 한다. 월 1회 농촌학교를 통해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한 지도 10년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고, 마치 외가에 다녀가듯이 자기집, 자기 동네처럼 찾아와 함께 놀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간다. 도시 농촌간의 유기적 소통 장면을 보며 도시 농촌의 접점을 찾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시중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고 맛도 없어요. 여기서 만들면 맛도 좋고 믿을 수 있어 좋아요. 잘 배워서 자식들 결혼할 때 만들어주고 비법도 전수하고 싶어요."

"전통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파트 사람들 10명이 함께 왔어요. 우리 농산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전통 고추장을 먹을 수 있다니 참 좋아요."

참가자 중 두 분을 만나 잠시 나눈 이야기다. 모든 참가자가 친환경 농산물로 전통 고추장을 직접 담가 먹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듯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봄을 느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주변 들판에 나가 봄나물을 캐는 도시 주부들의 모습이 더없이 즐거워 보였다. 더 깊게 덕실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쁜 취재를 마쳤다.

글 **권순욱**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농작물 수확의 기쁨, 텃밭에서 녹색정감을 걸우며

– VOL.105 (2017.1월+2월)에 이어서 식용작물(감자, 고구마, 옥수수, 수수) 원예작물(고추, 호박, 박고지, 대파, 상추, 수박) 공예작물(콩, 땅콩, 참깨)을 키워 가을걷이의 기쁜 정감을 싣습니다 –

식용작물

감자를 심은 지 두 달 남짓 지나니 주렁주렁 알이 매달린다. 6월이면 캔다. 감자줄기를 양손으로 꽉 잡고 쑥 뽑아 올리니 굵직한 감자가 주저리 매달려 나온다. 이 기분은 감자심고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수확의 기쁨이다. 감자는 다양하게 변신한다. 감자찌개, 납작하게 썬 감자를 진간장에 졸이고 고추장을 발라 반찬으로 먹는 감자조림, 감자를 채 썰어 볶아 양념한 감자볶음, 돼지등뼈 감자탕, 감자전 등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고구마 캐는 날이다. 우선 낫으로 줄기를 걷는다. 줄기가 긴 것은 3미터 가까이 뻗는다. 비닐 멀칭을 벗겨 내고 호미로 작업한다. 신기하게 한 포기에 팔뚝만한 게 대여섯 개나 주렁주렁 달렸다. 캐는 게 너무 재미가 있다. 이 기쁨 또한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농사의 참맛이다.

옥수수는 껍질 잎이 누레지고 수염이 마른 옥수수를 수확해 씨알을 떨어 겨울 5일 장날에 뻥튀기 하니 아동기 시절에 튀밥 먹던 옛 생각이 절로 난다.

수수를 거둬들여 수수비를 만든다. 이삭을 뽑아 노끈으로 이삭 모가지를 이엉 엮듯이 넓적하게 엮고, 이삭대를 한군데로 모아 두 번 죄어 묶은 후 이삭대 끄트머리를 깐총하게 잘라주면 수수비가 만들어진다. 수수비는 방비와 마당비로 사용하는데 농촌정서에 친근한 물품이기도 하다.

원예작물

비가 적당히 내리면 고추는 신명난다. 어느 틈에 다녀간 벌 나비와 솔솔 부는 바람 덕에 고추가 주절주저리 매달린다. 붉은 고추 따기는 재미가 난다. 비온 뒤나 이슬로 고추 꼭지가 추겨져 있을 때는 피해서 딴다. 꼭지에 물기가 있어 잘 썩기 때문이다. 딴 고추는 그늘에 이틀 정도 널어 숨을 죽인다. 아직 풋기가 남은 고추는 이 때 붉어진다.

딴 고추는 거적자리를 깔고 햇살에 펴 널면 저희끼리 자글자글 웃어대며 야단이다. 흠이 있는 고추는 배를 갈라 햇볕에 널어놓았는데 하루살이가 떼지어 날더니 물컹물컹 썩고 말았다. 고추 농사는 말리기가 가장 힘이 든다. “뭐니 뭐니 해도 고추는 햇볕에 말린 양초(陽椒)여야지!”라는 말을 한다. 그만큼 맛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손수 농사한 보람이 있다.

나무그늘에서 보리밥 한 덩어리를 찬물에 말아 풋고추를 생된장에 찍어 먹으면 그 얼얼한 맛이 콧잔등에 송골송골 배어 나온다. 매운맛을 입김으로 호호 말린 땐 괜히 먹었다 싶지만 이내 가슴이 싸해지는 게 바로 풋고추의 진미다.

유월이면 애호박이 달리기 시작한다. 애호박을 채 썰어 식용유에 살짝 볶은 애호박나물을 물 국수의 거섶으로 올리고 시원하게 식혀서 먹으니 여름 반찬으로 제격이다. 호박잎쌈은 뒤집어 싸 먹어야 목구멍에 부드럽게 넘어간다. 보드라운 잎을 따서 잎 뒷면에 자잘하게 박힌 가시 털을 벗긴다. 잎자루 끝부터 찢으면 명주실 같은 섬유질이 하얗게 벗겨진다. 벗긴 잎을 양손으로 가볍게 치대어 숨을 죽인 다음 밥솥에 찐다. 이걸 짭짤한 쌈장에 밥을 얹어 먹으면 최고의 맛이다.

고추(위), 호박꽃(아래)

늙어서 좋은 건 호박이다. 누렇게 익은 호박을 청둥호박이라 한다. 청둥호박을 잘라 속을 파낸다. 씨를 볼가 낸 나머지 속을 조각내어 껍질을 깎아 호박죽을 끓인다. 늙을수록 좋은 게 호박이라는 걸 구수하고 달달한 호박죽이 증명한다.

박고지로 바가지를 만든다. 잘 익은 둥근 박고지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갠다. 고무줄 같은 끈을 세로로 둘러매고 금을 긋고 톱질해 두 동강 낸다. 속을 밝아 내고 솥에다 격자 정그레를 하고 그 위에다 바가지 감을 올려 김으로 찐다. 푹 익혀 솥에서 들어내어

겉껍질을 긁어 숟가락으로 깨끗하게 벗겨낸다. 그늘에서 말리면 노릇하게 익은 바가지가 만들어 진다. 이렇게 만든 바가지는 농촌 부엌용품으로 쓴다.

대파 모종을 심은 지 며칠 안 가서 연녹색으로 뾰족뾰족 잎을 내밀고, 따뜻한 기운이 돌기 바쁘게 단번에 새 잎을 쑥 밀어 올린다. 한 뼘 정도 자랐을 때가 채소로서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 대파를 다듬으면 하얀 아랫도리와 연녹색 윗도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밀가루 풀에 담갔던 파를 건져 프라이팬에 가지런히 편다. 불을 지피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서 파끼리 어깨걸이 한다. 닳은 숟가락으로 쓱쓱 눌러 뒤집어 지진 파전 맛은 일품이다.

상추는 텃밭에 씨를 뿌리고 2~4일이 지나면 싹이 튼다. 물주기를 하면 잎 질이 연해지고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비좁은 곳을 솎은 걸 먹을 수 있어 텃밭생활에서는 안성맞춤이다. 다듬은 아기 상추를 그릇에 반쯤 채우고 그 위에 갓 해낸 밥 한 그릇을 쏟는다.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다 싶지만 비빌수록 줄어든다. 밥의 더운 기운에 상추가 숨어드는 거다. 짭짤하게 끓인 된장을 끼얹고 고추장, 참기름 몇 방울을 뿌리면 제일가는 맛이다.

상추는 여름철 별미이다. 한여름 더위를 타면 입맛까지 싹 달아난다.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쌈을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

수박은 심고서 40~45일이 지나면 수확한다. 열매가 달리고 익어 가는데 따는 시기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매일 같이 주먹을 가볍게 쥐고서 똑똑 두들겨 보고 익었는지를 가늠해 보았지만, 결국 맨 처음 달린 수박은 수확시기가 너무 늦어 먹지를 못했다. 알고 보니 꼭지가 배꼽처럼 쏙 들어갔을 때 따는 것이었다.

공예작물

콩은 순자르기를 한다. 순을 잘라주면 가지가 많이 벌어 수확량이 배가 된다. 이 때 따낸 보드라운 콩잎

대파

을 한 잎 한 잎 개켜 소금물에 양파를 갈아 넣고 된장을 풀어 삭혀서 먹는다. 삭은 콩잎에 밥 한 숟가락 떠 싸서 먹으면 밥알이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맛이 있다.

메주 만들기를 한다. 가마솥에 불린 콩을 넣고 삶는다. 푹 삶아 더운 김을 날린 후 보자기에 넣고 발로 올라서 밟아 이긴다. 젖은 수건을 고지 속에 두른다. 이긴 콩을 차곡차곡 넣고 젖은 수건으로 주둥이를 싸매고 다시 발로 밟는다. 메주 모양이 잡히면 수건 째로 고지에서 빼낸다. 메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콩을 재배해 된장을 담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매년 된장을 담글 생각이다.

땅콩은 잎이 누릇누릇해지면 캔다. 포기 째 뽑아 올리는데 씨알이 올망졸망 달려있다. 땅콩 꼬투리를 탈립시켜 담으니 금세 바구니를 채운다. 텃밭 농사하는 재미가 여기에 있다.

참깨는 아래 잎이 누레지면서 낙엽지고 제일 아래 꼬투리부터 터지기 시작한다. 이때가 거두기 좋은 때다. 위 꼬투리까지 익으면 아래쪽 것은 다 벌어 떨어진다. 급한 볼일로 며칠을 지나쳤다. 참깨 알갱이가 땅바닥에 수두룩 떨어진 것이다.

이를 알아차린 산비둘기와 참새가 만찬을 즐겼다. 밥상을 차려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가을걷이 하는 시기에는 한눈 팔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가 보다.

땅콩

꼬투리가 벌어진 참깨가 많았다. 방법 끝에 참깨 원줄기 밑동을 하나하나 낫으로 잘라 작은 다발을 만들면서 곁에다 포대기를 펴고 한 번씩 떨어 내리며 베나갔다. 이때 떨려나오는 알이 가장 질이 좋다고 한다. 꽤 많은 소출을 보았다.

작은 단 세 개를 합치고 끝을 다시 묶어 삼발이가 되게 해서 세운다. 한 사나흘 볕을 쐬고는 다시 떤다. 깻단을 뒤집어 들고 막대기로 툭툭 치면 유백색 알갱이가 와글와글 흘러내린다. 여간 즐겁지가 않다. 어레미 질로 검불을 가려내고 키질까지 마치면 참깨 타작이 끝이 난다. 농사한 기쁨을 만끽한다.

300평 남짓 텃밭에다 열댓 가지 작물을 심었다. 씨 뿌리고 모종심어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생명은 정성을 다한 이상으로 잘 자라 주었고 수확의 기쁨까지 맛보게 해주었다. 텃밭 둘레에 산책길을 매일같이 다니며 이들과 살다 보니 저희끼리 도란도란 나누는 얘기가 들리는 듯하고 낱낱의 숨소리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을 듯하다. 이 모든 게 온순함과 유연함으로 이루어지는 초식동물 같다. 세상살이가 안락해지고 안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농업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계적인 산업과는 다르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새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생겨나서 없어지기를 거듭하는 자연의 섭리에 제법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텃밭을 맨발로 거닐면 식물이 흙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듯 금세 발바닥이 간지러워지고 공중으로 뜨는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싱그러운 풋내가 전신에 퍼지며 힘이 절로 솟구치고 눈앞이 너무나 편안해진다. 이곳에 터 잡기를 잘 했다. 이런 게 녹색 정감이고 텃밭생활이다.

글 **조삼래**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교수 / 정책연구위원

“배고픈 며느리의 원한~ 솥이 작다에서 유래~ 솟쩍~”

천연기념물 제 324호 소쩍새

소쩍새는 분류학적으로 올빼미목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로 우리나라의 웬만한 시골의 야산이 있는 곳이면 봄부터 여름까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름철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에 분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134 종정도 분포하며 우리나라는 소쩍새, 큰소쩍새, 올빼미, 수리부엉이 등 약 10종이 분포하고 있다.

항상 봄이 되면 초저녁부터 “소쩍”, “소쩍”하고 반복해서 울어대며 농촌의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나 기타 노거수의 구멍에 둥지를 틀고, 3~5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알 품기는 암컷이 도맡아 하고 약 24~25일 정도 포란하면 부화된다. 먹이는 주로 들쥐 등 야행성 작은 동물과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우리말의 “소쩍새”란 이름은 물론 그 특유한 울음소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되며 4월 초부터 대청호 주변 마을에는 저녁이면 여기 저기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른 봄, 번식기를 맞은 소쩍새의 수컷은 솟쩍, 솟쩍 하고 큰 소리로 우는데….(사실은 노래 부름) 바로 이 〈소쩍〉 이라는 소리 때문에 소쩍새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로는 “Scops Owl” 라고 하는데, 여기서 “Scops”는 〈소쩍새〉를 뜻하는 말이고 “Owl”은 〈부엉이〉 또는 〈올빼미〉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이 새의 학명은 “Otus scops” 인데, Otus란 뜻은 “귀”를 뜻하는 말로 이 새가 귀모양의 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소쩍새를 한자로 토(鵚), 목토(木兎), 부형이, 부엉새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밤까마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솥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두견새라고도 불리는 소쩍새, 사실은 전혀 다른 새”

옛날에 며느리를 아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먹는 밥이 아까워서 아주 작은 솥을 주고 밥을 짓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며느리가 먹을 밥은 항상 부족해 결국 며느리는 굶어죽고 말았는데…….

후에 그 영혼은 한 마리 새가 되었고, 그 때의 배고픔이 원한이 되여 “솥이 작다” 또는 “솥 작다”, “솥 작다”하고 밤마다 울어댄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에서는 이 새의 소리를 듣고 그 해의 농사작황을 점치기도 했는데, 만약 소쩍, 소쩍 하고 울면 그 해는 흉년이 들고, 솟작다, 솟작다 하고 울면 솥이 작을 정도의 곡식이 생기기 때문에 풍년이 온다는 것이다.

소쩍새는 우리민족과 더불어 살아온 새로써 문학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 라는 시에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에서는 우리민족의 민족적 애환과 고통을 이긴 아품을 소쩍새의 울음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학 속에서는 이새를 진달래가 피는 계절에 운다고 해서 두견새 또는 접동새, 불여귀, 귀촉도 등으로 불리 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견새와 소쩍새는 완전히 다른 새이기 때문이다.

사실 소쩍새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 새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색깔도 몸 전체가 회갈색, 흑색, 갈색 등으로 되어 있어서 더더욱 눈에 띠지 않지만 해가 진 후 동네어귀의 느티나무(정자나무)에서 매우 큰 소리로 구슬프게 울기 때문에 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소쩍새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 324호로 지정 되어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번식하는 흔한 새였는데 도심지의 빌딩의 반사유리에 부딪치고, 또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셔 희생당하는 개체가 늘고 있으며 서식지 감소 및 문명사회에 또 다른 요인으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글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대청호 녹조 대응 전문가 토론회

대청호는 해마다 녹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대청댐 담수시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대청호 상류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문제도 있다.

지난 3월 14일 시민환경연구소와 (가칭)대청호녹조대응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주관한 대청호 녹조 대응 전문가토론회가 금강유역환경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가칭)대청호녹조대응협의회는 대청호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 K-water, 금강물환경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물환

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모여 대청호의 녹조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민관협의기구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재정 연구사는 대청호 녹조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청호 녹조발생의 원인을 공간적 특성과 계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유역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길어서 녹조 발생이 용이한 점과 하절기 집중강우로 인해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이유로 녹조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또 2016년부터 개정된 조류경보제가 녹조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를 제외하고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였다는 내용과 용어가 주의보, 경보, 대발생에서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바뀐 내용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K-water 대청댐관리단 장봉호 과장은 대청댐 녹조발생현황과 대응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청댐관리단은 사전 예방적 대응으로 소옥천(서화천) 수계 수질개선사업, 대청호 인공수초재배섬 조성, 대청댐 유역 비점오염원조사등을 수행하였다. 발생된 조류에 대한 대응으로는 수중폭기 장치, 조류확산 방지막, 조류제어 수류차단막, 수면포기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녹조를 직접 제거하는 수상콤바인을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제는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이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백명수 부소장은 녹조발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소통체계가 일방성의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자세히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시민소통 사례와 호주의 지방정부 차원의 조류 문제에 대한 부처별 협력과 민관 협력사례를 제시하였다. 녹조발생에 대한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확대를 들었고,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3명의 발제 후 대전대학교 배병욱 교수의 진행으로 손동석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팀장,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박사, 길복종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대청호 녹조와 관련하여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제안과 대청호 녹조관련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대청호녹조대응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연대사업국장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위한 하천감시단의 다짐!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하천감시단 발대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창립 첫 해인 2002년부터 하천감시단을 준비하였고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주민이 금강과 대청호 보전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주민참여형 하천감시조사활동을 활동해온지 올해가 16년째이다. 2007년까지는 보은 · 옥천 · 영동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충북금강하천감시센터로 활동하다가 2008년부터 무주와 금산네트워크가 포함되어 금강하천감시센터로 활동하였다. 2010년에는 청주시 문의면, 2013년에는 대전시 대덕구 · 동구까지 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대청호유역하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천감시단으로는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 옥천군 · 보은군 · 청주시 문의면, 대전 대덕구 · 동구에서 총 123명의 하천감시단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추운 겨울을 지나 꽃샘추위까지 물러가며 화창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던 지난 3월 16일, 충북 옥천에서 2017년 금강하천감시단의 활동을 내외에 알리는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하천감시단 발대식'이 열렸다. 하천감시단 발대식은 오전 10시부터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하천감시단과 네트워크 대표 등 활동가, 내빈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발대식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환경교육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대식 행사는 금산 하천감시단 대표이자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인 고선환 대표의 사회로 시작

천감시단 대표를 선출하였다. 올해부터 지역별 하천감시단 대표는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발대식에서는 각 지역의 하천감시단 대표가 무대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금산의 고선환 감시단 대표, 대전 이재용 감시단 대표, 무주 황성심 감시단 대표, 보은 방한일 감시단 대표, 영동 한경수 감시단 대표, 옥천 정자현 감시단 대표, 청주 이연희 감시단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짧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지역의 감시단 대표는 올한해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다.

1부 순서 마지막으로 '금강하천감시단 활동결의문'을 낭독하였다. 활동결의문은 대전 이재용 하천감시단 대표가 낭독하였고 전체 감시단이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1부 발대식에 이어서 2부 환경교육은 '하천과 수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가 해주셨다. 김영일 박사는 기후변화와 물환경, 우리나라의 물환경 현황, 금강유역 현황, 하천과 수생태계, 하천감시사례 소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신한중 대표는 급한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오셔서 개별적으로 하천감시단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신한중 대표는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도 멀리서부터 참석한 감시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금강과 대청호를 보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자고 격려하였다.

이번 하천감시단 발대식을 통하여 본격적인 하천감시조사활동을 앞두고 서로 격려하고 활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금강과 대청호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되었다. 먼저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부터 가졌다. 각 지역별로 참석한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하천감시단의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혁 국장이 설명하였는데 하천감시단이 자발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하천감시단의 하천감시조사활동 요령을 하나 하나 설명하였다. 하천조사에 있어서 사진촬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천 조사할 때 사진촬영을 꼭 해주실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하천감시단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천감시단 위촉장은 모든 하천감시단에게 수여된다. 발대식에서는 시간관계상 지역별로 1인을 선정하여 무대에서 수여한다. 올해는 각 지역별로 하

글 **전선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 팀장

회원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끌어내 지역하천 수질환경 개선 위해 노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대표 최왕진)는 지난 한해동안 함께 활동했던 회원마을과 그동안 적잖이 소원했던 회원마을을 규합하여 올해 한해동안 금강~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금강본류로 이어지는 지역하천을 상시 조사 및 감시활동을 병행하면서 하천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효율성있게 추진할 것이며,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물과 흙, 주변 환경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고심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무주관내 학생들과 금강~대청호 맑은물지키기 위한 교육활동과 홍보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원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농약빈병수거를 통해 맑은 금강 만들기를 전개하면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마을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지역은 환경오염도가 비교적 적은 청정지역이긴 하나,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생활폐기물 노천소각처리, 폐영농자재(폐비닐, 농약빈병 및 잔유물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이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연대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주군 농촌환경오염 실태분석자료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따라서 마을환경오염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간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실천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농약빈병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연말에 농약빈병 판매대금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자연도 살리고 소득창출 효과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우리지역 회원마을 주민들은 보다 더 쉽고 재밌고 알찬 환경교육을 고대한다.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익한 환경교육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연대하는 지역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다 재미있고 효율성있는 환경교육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와 함께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마을하천정화활동과 도랑살리기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마을의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과 결과, 더불어 주민들의 친환경적 인식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참가회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글 **노금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 팀장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맑은 물, 금강~대청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대표 길윤현)는 올해 대청호 상하류간 수질보전협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하류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시교류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강본류로 이어지는 마을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유해식물류 제거를 통한 하천생태계보전활동, 주민환경의식을 개선하고 환경보호활동을 확산시키며 금강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해결함으로써 금강~대청호 수질보전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금산네트워크는 금산군을 비롯, 7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 및 11개의 회원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되었으며, 올해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통해 간사단체를 정심회에서 맡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살림과 전반적인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활동을 좀더 세부적으로 소개하자면, 맑은강만들기를 위한 환경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함지박을 활용한 유치원 물 환경체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해한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주제로 학교와 연계한 자연관찰을 통해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사랑의식함양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실천활동교육과 군내 축산농가 및 축산농협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줄이기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마을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하천정화활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원활한 정착과 하천변에서 쓰레기 태우지 않기를 실천 유도하기 위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생태계 유해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농업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마을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청호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아산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 수확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상하류 주민들과의 어울림 한마당 체험교류, 회원마을 벽화그리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애용으로 물과 흙을 살리고 먹거리로컬푸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은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참여단체 및 기관, 회원마을의 유기적 연대를 도모하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맑은 물 금강~대청호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배려와 협력이 필수요건일 것이다. 관계자들 모두 다함께 뭉쳐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우리들의 노력이 기대하는만큼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글 **강선경**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 팀장

“환경교육 및 하천정화활동, 주민들의 동참이 중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대표 배임식)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정화활동이나 환경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금강 맑은물 지키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강~대청호보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준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금강본류 및 마을도랑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기획, 1차적으로 4개의 회원마을을 선정하여 년 2회 실시키로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을 확대해 나가기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의했다.

이와같은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원마을과 꾸준한 연대가 필요할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마을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청호보전운동의 홍보를 집중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교육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손이 늘 부족한 농촌마을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농촌일손돕기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더불어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를 기획하여 보다 연대를 끈끈히 도모하는 가운데 활기찬 농촌마을을 기대하는 한편 내가 버린 비닐, 농약병 등이 환경오염이 된다는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업중에서 영동금강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구성된 인적자원들과 함께 제대로 된 환경교육의 심화과정을 열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물환경교육을 실현하고 생활속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청호

보전운동본부 사무처와 함께 연대하여 야심차게 도약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이 물환경교육가로 심화발전되는 것을 꿈꾸는 이 사업은 지난해 첫출발한 사업이니만큼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하기에 더욱 지속적인 심화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며, 기대되는 환경교육사업이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수료식을 통해 지역환경교육가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해설사들은 총 20여명. 기존의 대청호해설사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심화과정과 간담회를 반복할 것이며, 이 과정속에서 우리지역의 환경교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자원봉사 환경교육동아리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본다.

글 **오희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 팀장

대청호 상류지역의 친환경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대표 이안재)는 올해 사업의 목표로 회원단체, 회원마을 참여도 강화와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금강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대청호 상 · 하류가 상생하는 '대청호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은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통해 구성원간의 친밀한 공동체 의식형성을 도모하며, 자연생태계가 원형에 가깝게 보전되어 있는 순천만 생태공원을 직접 보며 대규모 습지보전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생태보전 가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주관 안내환경사랑실천단), 도농교류(대전네트워크/ 주관 옥천살림)활성화와 농산물 판매지원, 회원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마꾸기 사업, 지역주민, 학생이 함께하는 대청호길 걷기(주관:옥천신문사)와 옥천네트워크의 특화사업인 금강 · 대청호 어린이 자연학교[대청호지킴이단]의 사업이 준비되어 있다.

금강~대청호 어린이 자연학교[대청호지킴이단]의 사업은 마을과 지역이 아이를 키우는 입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밀착형 '어린이 자연학교'를 통해 청소년 수질보전활동의 모델을 만들며, 지역의 군청, 교육지원청, 언론사, 환경관련단체, 주민자치조직 등이 연계 · 협력하여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속의 환경 · 생태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한다.

옥천군을 중심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주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11월에는 수료식이 진행 될 예정이다. 월별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환경교육, 에코판화 티셔츠 만들기
– 수질측정, 수서생물 관찰
– 석호리 부유쓰레기장, 대청댐 견학
– 생태습지공원, 환경사업소
– 추소리 쓰레기처리장, 상수도 사업소
– 수료식(활동사진, 자료전시)

특히 올해로 7년째인 이 사업은 그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역내 어린이에게 체험환경교육을 통한 수질보전 인식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사랑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학생의 금강~대청호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어 점차 상류지역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글 **이화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네트워크 팀장

내고장 청정마을 만들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네트워크(대표 배영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주관단체를 맡고 있으며 대청호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2017년 사업의 목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연친화적 교육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되살리고 자연과 마을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드는 친환경 생태공동체를 지향하여 내고장 청정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지역을 대체로 생태마을로 가꾸기 위해 회원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이며, 환경교육과 하천정화활동 및 수목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회원단체, 회원마을과 유대관계를 형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태마을 만들기 활동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미팅과 마을답사 및 정보공유를 위해 네트워크와 회원마을 주민이 함께 소통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벽화그리기를 통해 살기좋은 아름다운 마을로 꾸미면서 마을주민들의 환경사랑의식을 함양하고 생활속 환경실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후 훼손된 벽화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농산물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상.하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자원의 생태적 소중함을 깨닫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장려하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를 확대함으로서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려 한다.

올 한해는 물의 중요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섯 작품(지렁이 이사오는날, 집을팝니다, 행복한 주스나무, 물이 부족하단말야, 세계 파리 잡기대회)을 교육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아끼는 계기를 마련해 도와줌으로서 환경실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미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활동은 어느 개인 혼자서 행하거나 이룰 수 없다. 네트워크 참가단체 및 기관, 회원마을주민들과 함께 행하고 이뤄내야 할 일이다. 여기서 협력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단체 및 마을주민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네트워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대청호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보전하는 일에 앞서 방법을 모색하고 먼저 실천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스스로 기대해 본다.

글 **정미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팀장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공동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대표 박노일)는 올해 회원단체와 회원마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마을만들기 운동, 지역하천 현안을 해결하고, 자치단체와 마을, 회원단체 협력을 통한 정책대안 실천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네트워크는 청주지역 10개의 민간단체와 2개의 기관, 6곳의 마을과 함께 '도농상생 친환경 생태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진행한다.

올해 회원마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친환경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2월 노현리 마을 앞 체육공원에서 진행한 달집 태우기 행사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수질보전운동과 가시박 제거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가시박 제거사업 또한 두모리 마을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재진행하게 되었는데, 가시박 씨앗이 나오는 5~6월을 시작으로 장마철 전후 4~5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농교류'사업은 작년에 이어 무주네트워크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진행할 것이며, 회원단체인 청주YWCA와 함께 주관한다. 회원단체와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도농공동체를 경험하고 방문한 마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1박2일간의 생태체험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생태환경보전운동을 전개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대청호반 생태교육'은 청주팔백리가 주관하여 연 4회, 충북생명의 숲이 주관하는 '숲과 물 교육'은 연 2회로 총 6회의 환경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이 활동은 대청호반 마을, 둘레길 답사 등 생태환경교육을 통해서 도농공동체 운동을 교육하고, 도심지역 시민들에게 물 보전 등의 환경교육과 대청호 인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청호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은 마을과 대청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주체성과 '시민참여'일 것이다. 때문에 청주네트워크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사전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대청호반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조사를 진행하여 네트워크 회원마을과의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대활동을 통해 회원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의 대청호사랑 및 수환경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게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현안과 주민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관협력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회원마을 및 참가단체기관의 자발적인 동참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대청호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 **조순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청호농산물보따리 확산을 통해 상생을 꿈꾸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대표 김정민)는 올해 대청호 상 · 하류 네트워크의 협력을 위해 지역농업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간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수질정화 환경교육'과 '대청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통해 대청호보전을 위한 생활속 실천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청호상류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대청호 주변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제철농산물을 매월 다른 구성으로 집으로 배송하는 '대청호 보따리'사업은 점차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보따리 사업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아울러 대청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 속 로컬푸드운동을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대청호를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 실천운동으로 '찾아가는 수질정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민들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EM(유용한미생물)을 교육하고 생활속에서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대청호의 소중함을 알고 수질정화에 기여하게 한다. EM(유용한 미생물)은 발효원액을 가정이나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농가에서는 토질 개량과 농산물의 면역성 증가로 당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높아가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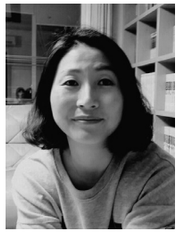
대청호 직거래 장터에서는 상류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며, 하류지역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여 대청호주변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직거래장 터를 통해 상 · 하류 모두 생명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농촌체험활동은 옥천, 보은네트워크와 연대하여, 농촌의 일손을 돕는 도농교류 진행과 지역 농산물의 재배과정을 직접 보고 수확해 봄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직거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청호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대청호에 사는 생물에게 서식처, 먹이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청호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참가자의 생태감수성을 키우며 마을환경개선활동과 농산물 도농교류하기 등 대청호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연 6회 실시하여 참여단체간의 친선도모, 사업내용과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나누면서 더욱 발전하는 대청호보전운동 대전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나아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히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 **한유정**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물사랑 시민교육 ‘물사랑지킴이단’& 물사랑 인형극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대표 공정해)는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친환경마을 만들기 활동,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주민교류를 통한 상하류 교류 지원, 천안 · 아산 지역 시민들의 물 절약 및 수질 보전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

2017년에는 상 · 하류 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상 · 하류 주민교류, 하류 하천조사(병천천)등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대청호를 알리는 한편 대청호 하류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청호보전운동과 수질보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물사랑 시민교육에 집중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물사랑 시민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민교육 활동인 ‘물사랑지킴이단’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의 위기를 느끼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체험활동을 병행한 시민교육이다. 특히 체험교육은 em(유용한 미생물군)을 이용한 천연세제 만들기 및 생활에서의 활용에 대해 교육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에서 대청호 알리기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시민교육 활동인 ‘물사랑인형극‘은 초등 저학년 및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물사랑 교육이다.

지난 2월 구성된 청소년 인형극단은 물사랑을 주제로 대본 각색을 시작으로 하여 인형 제작, 음향 작업, 무대 제작을 한 후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3개월간의 물사랑인형극 연습 과정을 거쳐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물사랑 인형극을 상연할 계획이다.

물사랑 교육을 통해서 환경보전의식, 친환경적 생활습관,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환경 꿈나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하여 대청호보전운동에 대한 홍보교육과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서로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청남대 · 대청호 복합관광단지 조성 추진… 규제 완화 ‘관건’

충북도와 청주시는 2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청남대와 대청호를 하나로 묶는 대규모 생태 · 휴양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청남대와 대청호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 지자체는 사업 추진의 관건인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와 청남대 및 주변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각 정당,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했다.

3월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대청호와 청남대를 중심으로 주변을 연결해 ‘생태 · 휴양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도와 시는 현재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우선 청남대 대통령길 인근에 리더십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규모는 6만5653㎡이며 사업비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은 친환경 숙박시설, 리더십 교육원, 기념품점 등으로 꾸며진다. 주변에는 야영장 등이 들어선다.

대청호 관련 사업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생태 습지와 친환경 인공섬, 공원 등의 건립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살펴보게 된다. 대청호와 청남대를 잇는 케이블카와 출렁다리도 만들 계획이다.

케이블카는 대청호가 자리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청남대까지 1.5㎞다. 출렁다리는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청남대까지 0.6㎞ 구간에 설치된다.

이들 지자체가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청남대와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은 많지만 체류형이 아니란 점에서다. 이곳에 숙박이나 편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머물며 즐기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는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환경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 관리규칙 등을 개정, 대청호가 오염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숙박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청남대 및 주변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청남대 컨벤션센터 건립, 대청호 생태 습지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관광지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남대와 대청호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하루 이상 머물면서 관광하길 원한다”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2017. 3. 2. 천영준 기자 yjc@newsis.com

“불법행위 안돼” 대전 동구, 대청호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빙어 알 인공수정(충북도 남부출장소 제공)

대전 동구는 오는 6월 말까지 대청호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동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 물건 적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 ·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지는 추동선(대청호자연생태관 · 천개동길 등)과 회인선(주촌동 배말 · 세천동 세정골 등), 용운동(선량마을 등), 금산선(산흥초교 · 소룡골 등), 장척선(알미천 · 공주말 등) 등이다.

확인된 불법사항은 원상회복이나 자진철거 명령 등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 또는 재차 미이행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재발방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 3. 6.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대청호를 빙어 낙원으로"…충북도 8년째 인공 증식

– 올해 수정란 7천500만개 방류, 3천500만마리 부화 기대

충북도가 '호수의 요정'으로 불리는 빙어 인공 증식에 발 벗고 나섰다.

2010년부터 대청호와 주변 저수지에 풀어 넣은 빙어 수정란이 비교적 잘 부화돼 어민 소득원으로 떠오른다는 분석에서다.

빙어는 어민 소득뿐만 아니라 겨울철 낚시꾼을 끌어모아 관광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지난 겨울은 포근한 날씨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질병이 번지면서 낚시터 개설이 불발됐지만,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은 한해 10만여명이 몰리는 중부권 최대 빙어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다.

충북도 남부출장소는 지난 4일 대청호에서 어미 빙어 150㎏을 붙잡아 7천500만개의 알을 인공수정한 뒤 부화상자에 담아 다시 호수에 풀어 넣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수정란은 이달 하순께 새끼 빙어로 태어난다. 부화상자의 인공 수정란은 부화율은 50%에 육박해 자연상태(20~30%)보다 2배 가량 높다. 이런 확률이면 올해 인공수정을 통해 적어도 3천500만 마리의 새끼 빙어가 새로 태어난다.

도는 지난 7년간 이런 방식의 인공수정으로 4억9천만개의 수정란을 호수와 저수지에 풀어 넣었다. 그 덕분에 빙어는 대청호 특산어종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남부출장소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수정란이 투입된 수역에서 훨씬 많은 빙어 개체수가 확인되고 있다"며 "당분간 인공증식을 계속해 빙어를 대청호 대표 어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7. 3. 7.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낚시꾼 쓰레기 투기…몸살 앓는 대청호

– 대청호 환경오염…시민의식 실종 양심불량 지도단속 강화지적

날씨가 풀린 대청호에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봄기운이 완연해지자 옥천 대청호에 주말과 휴일이면 어김없이 낚시꾼들이 찾는 천혜의 낚시터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공터라고 생긴 곳이면 마구 세워 두는 바람에 주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도 발생한다.

가족단위로 찾아 온 낚시꾼들도 있지만 전문 낚시꾼들은 아예 텐트까지 치고 몇 날 몇 일 밤을 세워가며 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낚시하며 손맛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각종 쓰레기를 버려 대청호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호수주변에 쓰레기는 되가져가자는 계도 플랜카드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다.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있는 양심불량 현장인 것이다.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대청호엔 평일인데도 70~80명의 낚시꾼들이 차량을 타고 들어가 고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었다.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대청호에 낚시꾼들이 고기잡는 텐트주변에 가스통, 술병 등이 널려있다. 고기를 잡느라 여념없는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대청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텐트주변에는 부탄가스통, 술병, 일회용 컵, 라면봉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이미 한차례 낚시를 하고 떠난 자리에는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나뒹굴었다. 이 때문에 대전 · 청주 시민들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옥천군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예산을 들여 인력을 따로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제 본격적인 낚시 철이 다가오고 있다. 대청호 연안마을 주민들은 낚시도 좋지만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

주민 박모(52 · 동이면 석탄리)씨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되가져 가든지 따로 모아두기라도 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며 "결국 주민들이 치워야 하기 때문에 연안마을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어 의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충북일보】 2017. 3. 14. 손근방 기자 nearshon@hanmail.net

충북 영동군, 환경부 시범사업 '옛 물길터 복원 사업' 최종 선정

– 금강 본류와 영동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0.6㎞ 구간 생태복원키로

충북 영동군이 옛물길터 복원 사업으로 영동천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3월13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옛물길(터) 복원 사업'이 2019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금강 본류와 영동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0.6㎞ 구간의 하천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초강리 금강 합류부 지점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옛 물길로 복원되고 생태건강 회복과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하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하천홍수터 공간개념을 도입한 '옛물길(터) 복원 시범사업'을 4대강 유역을 기반으로 전수 조사했다.

옛물길이 변화된 47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22개소 하천이 시범지역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에 영동군은 올해 2월 환경부에 본 사업을 신청, 2019년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20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수질정화습지, 수생생물서식지, 생태탐방로, 관찰 · 교육 체험시설 조성 등의 복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옛 물길 복원 시범사업에는 영동군(금강 본류), 부여군(석성천 하류), 남양주시(왕숙천 중류, 하류)의 전국 3개 지자체, 4개 하천이 선정됐다.

【일요서울-충북】 2017. 3. 7. 조원희 기자 gana1004@ilyoseoul.co.kr

대청호 오백리길, 청정 생태관광지로 도약하나

대전의 명소인 대청호오백리길의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선정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대전시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청호 오백리길을 '2017년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으로 신청했다고 3월19일 밝혔다. 선정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3개 분야 총 27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대청호 오백리길 6개 구간 59㎞ 중 4구간 동구 추동 일원을 주요 거점지로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로 산책'과 '추억 속 대청호'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함께 올래'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4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람형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추세로 자연환경을 향유하면서 자원의 보전이 가능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문체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17-03-19 이용민 기자 min54659304@daejonilbo.com

대전 산림욕장 인근 야산서 불…0.5ha 태워

지난 3월17일 오후 12시 46분쯤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림욕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5ha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와 장비 등을 투입해 이날 1시 40분쯤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밭에서 소각을 하던 중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CBS】 2017-03-19 김미성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K-water 대청댐관리단

지역주민과 함께 캠페인 25회 세계 물의 날 기념 대청호 대청결운동

K-water 대청댐관리단(단장 정의택)은 제25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21일 충북 옥천읍 수북리 대청호 주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대청호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전, 충남 · 북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청댐관리단, 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1백여명이 함께 했다.

또한 4월부터는 환경보전과 지역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옥천 · 보은군 주민과 함께 대청호 회남, 대정리와 추소리 지역 등에 산재한 쓰레기 수거작업도 벌일 계획이며,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대청호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낚시 및 행락쓰레기 되가져가기, 하천변에서의 불법투기금지 등 쓰레기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녹색구매 체험단 4기 모집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녹색구매 체험단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녹색구매 체험단'은 친환경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녹색상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녹색상품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체험단은 환경과 녹색상품에 관심 있는 시민 2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11월까지 격월 넷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주된 활동은 회차별로 친환경 제품 사용 및 후기를 공유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친환경 제품 무료 체험, 천연 제품 핸드메이드 교실, 우수 단원 시상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1차 모임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천안녹색소비자연대 1층 강당에서 '수질오염과 EM특강', '1차 체험제품 EM원액+당밀 증정'으로 진행된다.

기타 문의나 접수에 관련된 내용은 천안녹색소비자연대로 전화(041-578-9898)하면 된다.

풀꿈환경재단

4차 정기총회

지난 15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사)풀꿈환경재단의 4차 정기총회 및 2기 출범기념식이 개최됐다.

풀꿈환경재단은 그린 플랫폼을 지향하며 '14년 풀뿌리 주민환경운동 지원, 초록마을사업 및 미호천 상생협력프로젝트 등 환경인들의 교류와 결속을 위한 환경운동들을 적극 전개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 이사장으로는 이재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이 선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는 연우 상임이사가 맡게 되었다. 사무처는 김은선 사무처장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20인의 이사진과 감사,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5개 부문의 풀꿈환경포럼 위원이 선임됐다.

17년도 사업추진방향으로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및 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생태환경 체험교육추진, 풀뿌리 주민환경운동 지원 등 7대 중점 과제와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및 활동기반 다지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 및 협력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총회에 이어 2부에는 2기 출범기념식을 진행했다. 조동언 명창의 축하공연과 이철기 전임이사장의 이임사, 이재은 신임 이사의 취임사 이후 신임 임원 위촉식과 유쾌하고 의미있는 풀꿈다짐 퍼포먼스를 관람했다.

(사)풀꿈환경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4년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활동 기반을 확립하는 기간이었다면 , 앞으로의 3년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선도하기위한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잡고 본격적인 지원사업 및 협력 활동을 선보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무주군

무주군, 반딧불축제 생태환경 프로그램 공모

전북 무주군이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반딧불축제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객의 아이디어가 담긴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무주군은 3월13일 반딧불축제를 생태환경 대표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3월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생태환경축제의 이미지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군의 청정이미지와 부합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등이다.

군은 창의 · 대중성, 실현 가능성, 경제성 등을 적용 심사한 후 입상자에는 5만~3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등을 준다.

공모제안서는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탈핵이 답이다. 핵재처리실험 절대 반대" 기자회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지난 3월9일 후쿠시마 6주기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탈핵이 답이다. 핵재처리 실험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여 명의 대전시민이 참여하여 최근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원자력연구원에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과 핵연료 재처리 실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온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은 후쿠시마에는 아직도 수만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대전원자력연구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원자력연구소의 문제를 대부분 시민들이 직접 알아내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황현미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회를 맡은 이경자 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11일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6주기 기념행사에 함께 할 것을 광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대전광역시 동구

287개소 봄꽃 7300여본 식재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꽃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월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요 도로에 계절 꽃들을 식재함으로써 계절감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꽃도시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달 중 동구청로, 동서대로, 중앙로, 대전로 등 주요 도로 4개 노선 총 287개소에 양묘장에서 직접 양묘한 비올라, 팬지 등 봄꽃 73000여본을 식재해 주민들에게 향긋한 봄꽃 향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주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전 동구청 주변에 울긋불긋 봄꽃들의 향연이 시작됐다.

옥천군

"페트병 수돗물 '꿈엔-水' 맛 보세요"
350㎖·1천800㎖ 생산…비상급수·행사용 공급

충북 옥천군이 페트병 수돗물 '꿈엔-水' 생산에 나선다.

3월21일 옥천군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원정수장에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을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춘 뒤 이달부터 본격적인 물 생산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1시간에 350㎖ 1천병과 1천800㎖ 400병을 생산할 수 있다.

옥천군은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이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을 이물을 공급하고, 각종 행사 등에도 비매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꿈엔-水'라는 물 이름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이 고장 출신 정지용 시인의 '향수' 속 싯구절을 인용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현재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아리수)를 비롯해 부산시(수순365), 광주광역시(빛여울수), 천안시(하늘그린물), 전주시(전수얼수), 충주시(달래수), 영동군(이수) 등 26곳에 달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물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세계 물의 날 공식주제는 'Wastewater,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UN에서 매년 제시하는 공식주제와 연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한 것.

이날 기념식은 관련기관, 시민, 대학생, 환경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행사로 색소폰 공연, 부대행사로는 행사장에서 성안길까지 길거리캠페인과 수돗물 시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으며,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물관리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연환경교육연구회 회원 나영주 등 4명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티에스케이워터 차장 이정규 등 8명이 금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3월 물의 날 행사 외에도 금강천리 트레킹, 대청호 수중.수변정화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보전 행사를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감과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하천정비활동 본격 추진

대전 대덕구는 쾌적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과 함께 봄맞이 하천정비활동을 3월8일부터 5월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관내 지방하천 3개소(L=15.1km), 소하천 9개소(L=15.6km)다.

이번 봄맞이 하천정비활동은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상태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동시에 겨우내 쌓인 하천 주변의 쓰레기와 잡목, 잡초, 영농자재 폐비닐류 등의 수거를 하며 2단계로 나누어 하천관리점검, 보수 및 보강조치 순으로 5월까지 지속 추진해 장마철 홍수를 대비하고 하천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는 하천정비활동을 통해 하천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하천 주변 농가에서는 하천에 농업 폐자재 등의 투기 및 농작물 재배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KYC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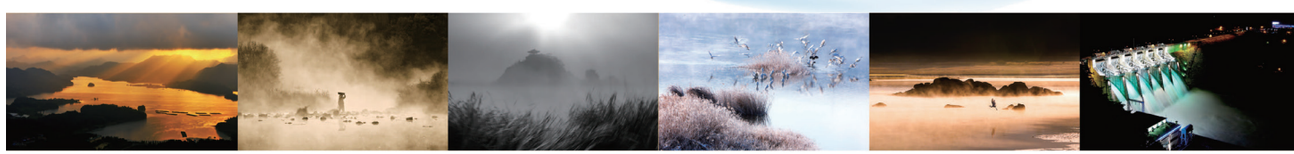
www.kwater.or.kr
www.daecheong.or.kr
www.dphoter.com

"2017 세계 물의 날" 기념 전시회

금강물 품다

◈ 일시 : 2017년 3월 21일(화) ~ 4월 23일(일)

◈ 장소 : **대청댐 물문화관 기획 전시실**



◈ 주관 K water 대청호보전운동본부

◈ 주최 디지털사진가회 DPhoter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11회
대청호 환경영화제 & 문화축제

금강~대청호 맑은물 만들기의 일환으로
수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활속 물사랑 실천활동을 약속하기 위한 시간,
대청호 환경영화제 &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 5. 14 (일) 11시 ~ 18시
대청댐물문화관 광장

주최 K water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모여락 협동조합

행사내용 환경영화제 : LED영상 장단편 영화 상영
로컬푸드직거래장터 & 대청호 환경체험부스
문화공연 노래공연, 악기연주 등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43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 전화 042)930-7340,1 전송 042)930-7342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